

## 중학생 가출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 개인·가정·사회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

김 경 희\* · 김 희 영\*\* · 김 수 강\*\*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변화로 인해 내면적인 혼란과 갈등이 매우 커지는 반면 자기통제와 조절 능력은 약해지는 시기이다. 이러한 불균형의 정도가 심하거나 만성적이 될 때 심리적인 불안정상태가 증가하게 되고, 이 현상의 극적인 표출방법 중 하나가 가출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 가출에 관한 정확한 통계를 산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2005) 자료에 의하면 2004년 한 해 동안 가출한 청소년(9-20살)이 16,894명으로 2003년에 비해 26.3%나 상승되었다. 그러나 공식통계에서 누락된 인원을 고려하고, 형식적으로 가출은 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길거리를 배회하거나 유해지역을 접근하면서 가출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생활을 하고 있는 청소년을 포함한다면 실질적 가출청소년의 수는 12만 명 이상으로 추정될 수 있다(Chang, 2003). 이처럼 가출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중학교·초등학생까지로 저연령화 되고(Lee, 2005), 만성 가출자·동반 가출자·여자 가출자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질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The Commission on Youth

Protection(2002)의 가출청소년실태조사 결과 10명 중 5명 정도는 불가피한 경우 가출할 수도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심지어 2.5명의 경우 청소년기의 자연스런 현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일반청소년들에게 조차 가출행동이 일반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Chang(2003)의 연구 결과 중학생이 인문고·실업고 학생보다 가출충동이 더 높고, 실질적인 가출현상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가정을 떠난 청소년은 각종 비행과 유해환경에 쉽게 젖어들어 폭력·절도·약물중독·청소년 성매매와 같은 각종 비행이나 범죄의 온상으로 유입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가출은 모든 청소년 문제를 심화시키는 비행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Nam, 1999). 가족에게는 다양한 측면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시킴으로써 가족의 역기능을 강화시키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소년의 가출문제는 단순히 청소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청소년 가출의 심각성을 인식 이에 관한 국내·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외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규명된 예측요인을 적용, 예방차원의 프로그램 개발하여 이를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Farella, 2000; Ruffolo, Sarri, & Goodkind, 2004; Thompson, Pomeroy, & Goger, 2005). 국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시간강사(교신저자 김희영 E-mail: yan33@hanmail.net).

투고일: 2007년 9월 15일 심사완료일: 2007년 11월 12일

내의 경우 역시 1990년에 접어들어 상황관련이론수준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건강상태, 성격특성, 스트레스, 비행경험 등의 개인의 일반적 특성, 가정환경, 부모-자녀 관계, 양육태도 등의 가정과 관련요인, 학교, 친구, 선생님과의 관계 등의 사회환경과 관련된 요인들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규명되었다(Chang, 1993; Cho, 2002; Korea Youth Shelter Association, 2005).

청소년 가출의 경우 사후 대책보다는 예측된 위험요인의 조절을 이용한 사전예방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전예방은 청소년비행과 미래의 성인범죄까지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가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직접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원인을 예측해 내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본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청소년 가출의 경우 단순히 몇 가지 원인적 요인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이며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 복합적이면서도 역동적으로 작용한다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가출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초기평가와 조기개입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어 이에 본 연구는 첫 가출시기가 가장 많은 중학교 청소년(Yui, Song, & Lee, 2000)의 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즉 한국적인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중학생의 가출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과 가정 및 사회환경 관련요인들을 중심으로 예측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중학교 청소년의 가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중재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자 시도 하였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중학교 청소년의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각적인 차원에서 규명하여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예측모형을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개인관련요인의 제 변인과 가출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 2) 가정관련요인의 제 변인과 가출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 3) 사회환경관련요인의 제 변인과 가출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 4) 청소년의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확인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상황관련이론(situation relating theory)의 서술적 관계성 조사연구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밝혀진 중학생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들을 중심으로 중학생의 가출을 예측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3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으며, 본 연구자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자이다. 연구 대상자는 총 613명이었으며, 이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21부를 제외한 592명의 자료만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 3. 연구 도구

#### 1) 성격특성

Kim과 Kim(1998)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사회성향(11문항), 정신·신체증상호소성향(10문항), 반사회적 성격(10문항), 우울성향(9문항), 자아존중감(5문항)의 5가지 하부요인 4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개발당시 매우 그렇다(6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Likert 6점 척도를 5점 척도로 재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부요인의 성격특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당시 Cronbach Alpha 계수 .787~.899범위였으며 본 조사에서의 Cronbach Alpha 계수는 사회성향이 .815, 정신·신체증상 호소성향이 .864, 반사회적 성격양상이 .796, 우울성향이 .738, 자아존중감이 .752였다.

#### 2) 스트레스

Rowlison과 Felner(1988)의 DHQ(Daily Hassles Questionnaire)의 도구를 참조한 Park(200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최근 2개월 동안 일상생활에 대해 대상자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2002)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계수는 .6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

서의 Cronbach Alpha 계수는 .689였다.

### 3) 비행경험

Kim과 Lee(1996)가 제작한 도구 중 비행유형별 Guttman's scale을 참조한 Kwon(199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일반지위비행(7문항), 재산비행(2문항), 성·폭력비행(6문항)의 3가지 하부요인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비행의 유무를 조사하도록 구성하였다.

### 4) 가족의 기능적 특성

Kim과 Park(1995)의 도구를 사용, 가족에 대한 애착(5문항), 부모감독(6문항)의 2가지 하부요인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부요인의 특성이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가족에 대한 애착이 .936, 부모감독이 .861이었다.

### 5) 부모의 문제 행동

Kwon(1997)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도박·외도·음주·흡연·비치료적 약물사용 여부 등의 5문항을 부모 각각에 대해(총 10문항)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문제 행동을 청소년이 많이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에 대해 신뢰도 검증을 한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는 부 .668, 모 .831이었다.

### 6) 부모(주양육자)-자녀간 의사소통

부모(주양육자)-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Barnes와 Olson (1985)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척도를 참조한 Kwon(1997)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하부요인으로는 개방적인 의사소통(6문항), 자녀에게 비위를 맞추는 내용(4문항), 부모의 회생적인 면을 반영하는 문항(3문항), 불성실·음박 및 평가형(13문항)으로 사용 당시 부와 모의 의사소통으로 나누어진 것을 부모 혹은 주양육자로 통합하여 총 2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부요인의 특성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Kwon(1997)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각각 .65~.8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개방적인 의사소통 .878, 자녀에게 비위를 맞추는 형 .652, 회생형 .735, 불성실·음박 및 평가형 .909이었다.

### 7) 학대경험

Straus(1980)의 도구를 참조한 Chung(2000)의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신체적 학대(6문항), 정서적 학대(6문항), 방임(7문항)의 3가지 하부요인 1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가 느끼는 학대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Chung(2000)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48~.87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신체적 학대가 .854, 정서적 학대가 .857, 방임은 .811이었다.

### 8) 학교요인

Kim과 Park(1993)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학교생활 만족도(4문항), 교사와의 관계(4문항)의 2가지 하부요인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는 낮고, 교사와의 관계는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계수는 학교생활 만족도는 .888, 교사와의 관계는 .732이었다.

### 9) 친구요인

Kim과 Park(1993)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친구에 대한 애착도(8문항), 필요도(4문항), 비행경험 친구의 수(11문항), 비행에 대한 친구의 압력(8문항), 비행에 대한 친구의 태도(8문항)의 5가지 하부요인 3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에 대한 애착도·필요도는 높고, 비행경험 친구의 수는 많으며, 비행에 대한 친구의 압력은 높고, 비행에 대한 친구의 태도는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계수는 친구에 대한 애착도 .894, 친구의 필요도 .713, 비행경험 친구의 수 .912, 비행에 대한 친구의 압력 .824, 비행에 대한 친구의 태도 .823이었다.

## 4.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관련문헌의 고찰을 통해 청소년의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출한 후,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해당도구를 선정하였다. 그 후 본 연구의 대상이 될 학교청소년들에게 예비조사(pilot test)를 실시하여 도구를 수정·보완하였다.

자료수집은 2003년 6월 19일부터 7월 19일까지 실

시하였으며, 각급 학교장과 담임교사, 보건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후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35~40분 정도였으며 신뢰도와 수거율을 높이고자 교실에서 연구자가 직접 설명하였고, 배부당일에 직접 회수하였다.

###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을 이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대해서는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가출 경험군과 비경험군간의 각 변인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chi-square 검정과 t-검정으로 분석하였고, 모든 통계검정의 유의수준은  $\alpha < .05$ 로 하였다.

t-검정과 chi-square 검정결과 유의하게 나타난 변인들과 비록 유의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선행연구 고찰 결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변수들을 선택한 후 stepwise selection method에 의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중학교 청소년의 가출을 예측하는 최적의 축소모형을 구축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총 592명이었으며, 이 중 남학생이 318명(53.7%), 여학생이 274명(46.3%)이었다. 학년은 1학년이 281명(47.5%), 2학년이 170명(28.7%), 3학년이 141명(23.8%)이었다. 부모와의 동거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친부모와 같이 살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550명(92.9%)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수준은 350명(59.1%)이 보통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의 학력은 320(54.1%)가 대졸, 모의 학력은 294명(49.7%)가 고졸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부모의 직업 모두 정규직이 가장 많았다. 대상자들의 비행경험으로는 음주경험이 143명(24.2%), 흡연경험이 101명(17.1%), 비행경험이 243명(41.0%), 약물경험이 12명(2.0%), 성경험이 13명(2.2%), 가출경험이 30명(5.1%)를 차지하고 있었다(Table 1).

### 2. 개인관련요인에 따른 가출경험의 차이분석

개인관련요인에 따른 가출경험군과 비경험군의 차이를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592)

Variable	Division	n	%
Sex	Male	318	53.7
	Female	274	46.3
Grade	1st	281	47.5
	2st	170	28.7
	3st	141	23.8
Score	Top	199	33.6
	Middle	341	57.6
	Bottom	52	8.8
Family structure	Living together with own parents	550	92.9
	Others	42	7.1
Economic status	High	193	32.6
	Middle	350	59.1
	Low	49	8.3
Education level of father	Middle school and below	55	9.3
	High school	217	36.7
	College and over	320	54.1
Education level of mother	Middle school and below	60	10.1
	High school	294	49.7
	College and over	238	40.2
Father's employment status	None	5	0.8
	Part time	117	19.8
	Full time	470	79.4

<Table 1 Continued>

(N=592)

Variable	Division	n	%
Mother's employment status	None	214	36.1
	Part time	68	11.5
	Full time	310	52.4
Drinking experience	None	449	75.8
	Have	143	24.2
Smoking experience	None	491	82.9
	Have	101	17.1
Delinquent experience	None	349	59.0
	Have	243	41.0
Drug abuse experience	None	580	98.0
	Have	12	2.0
Sex experience	None	579	97.8
	Have	13	2.2
Runaway experience	None	562	94.9
	Have	30	5.1

<Table 2> The Difference of Runaway Experience According to Individual-Related Variables

(N=592)

Variable		Runaway experience		$\chi^2/t$	p
		None n(%) / Mean(SE)	Have n(%) / Mean(SE)		
Sex	Male	306(96.2)	12(3.8)	2.391	.122
	Female	256(93.4)	18(6.6)		
Grade	1st	273(97.2)	8(2.8)	7.952	.019
	2st	161(94.7)	9(5.3)		
	3st	128(90.8)	13(9.2)		
Score	Top	194(97.5)	5(2.5)	7.407	.025
	Middle	322(94.4)	19(5.6)		
	Bottom	46(88.5)	6(11.5)		
Drinking experience	None	442(98.4)	7(1.6)	47.563	<.001
	Have	120(83.9)	23(16.1)		
Smoking experience	None	483(98.4)	8(1.6)	70.720	<.001
	Have	79(78.2)	22(21.8)		
Drug abuse experience	None	555(95.7)	25(4.3)		<.001 <sup>1)</sup>
	Have	7(58.3)	5(41.7)		
Delinquent experience	None	345(98.9)	4(1.1)	27.178	<.001
	Have	217(89.3)	26(10.7)		
Sex experience	None	555(95.9)	24(4.1)		<.001 <sup>1)</sup>
	Have	7(53.8)	6(46.2)		
Personality characteristics	Socialization traits	37.00(.34)	38.81(1.21)	-1.274	.203
	Psychosomatic symptoms traits	19.53(.35)	27.97(1.94)	-4.280	<.001
	Antisocial traits	22.27(.31)	28.52(1.72)	-3.573	.001
	Depression traits	25.93(.30)	24.14(1.34)	1.406	.160
	Self-esteem traits	16.44(.19)	14.66(.86)	2.242	.025
Stress of life		26.72(.29)	30.00(1.32)	-2.547	.011

1) Fisher's exact test

검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학년과 학교성  
적별 차이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으나( $\chi^2=7.952$ ,  $p=.019$ ,  $\chi^2=7.407$ ,  $p=$

.025) 성별( $\chi^2=2.391$ ,  $p=.122$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음주경험( $\chi^2=47.563$ ,  
 $p<.001$ )과 흡연경험( $\chi^2=70.720$ ,  $p=.000$ ), 약물경험

( $\chi^2=34.104, p<.001$ ), 비행경험( $\chi^2=27.178, p<.001$ ), 성경험( $\chi^2=46.641, p<.001$ )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성격특성에 있어서 정신·신체증 상호소성향( $t=-4.280, p<.001$ ), 반사회적 성격( $t=-3.573, p=.001$ )과 자아존중감( $t=2.242, p=.025$ ) 모두 가출 경험군에서 높은 평균치를 보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사회성향( $t=-1.274, p=.20.3$ )과 우울성향( $t=1.406, p=.160$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개인이 최근 두 달 동안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t=-2.547, p=.011$ ).

3. 가정관련요인에 따른 가출경험의 차이분석

가정관련요인에 따른 가출경험군과 비경험군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함께 사는 부모,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 경제적 수준( $\chi^2=6.740, p=.034$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부의 문제행동( $t=-1.529, p=.127$ )과 모의 문제행동( $t=-1.240, p=.215$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중 개방형( $t=2.549, p=.011$ )과 불성실·음박·평가형의 경우( $t=-3.066, p=.005$ )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반면에, 비위를 맞추는 형( $t=-0.031, p=.975$ ) 그리고 희생형( $t=.411, p=.681$ )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가 느끼는 학대경험에서 신체적 학대( $t=-3.532, p=.001$ )와 정서적 학대( $t=-3.101, p=.002$ ) 그리고 방임( $t=-2.889, p=.004$ ) 모두가 가출 경험군에서 높은 평균치를 보이고 있었고, 통계적으

<Table 3> The Difference of Runaway Experience According to Home-Related Variables (N=592)

Variables		Runaway experience		$\chi^2/t$	p
		None n(%)/Mean(SE)	Have n(%)/Mean(SE)		
Family structure	Living together with own parents	523(95.1)	27( 4.9)	2.441	.295
	Others	39(92.9)	3( 7.1)		
Education level of father	Middle school and below	53(96.4)	2( 3.6)	.684	.710
	High school	202(93.1)	15( 6.9)		
	College and over	307(95.9)	13( 4.1)		
Education level of mother	Middle school and below	57(95.0)	3( 5.0)	.224	.894
	High school	277(94.2)	17( 5.8)		
	College and over	228(95.8)	10( 4.2)		
Father's employment status	None	4(80.0)	1(20.0)	6.740	.034
	Part time	112(95.7)	5( 4.3)		
	Full time	446(94.9)	24( 5.1)		
Mother's employment status	None	202(95.2)	12( 4.8)	-1.529	.127
	Part time	65(95.6)	3( 4.4)		
	Full time	295(94.4)	15( 5.6)		
Economic status	High	182(94.3)	11( 5.7)	-1.240	.215
	Middle	337(96.3)	13( 3.7)		
	Low	43(87.8)	6(12.2)		
Parent's misbehavior	Father's misbehavior	8.60(.16)	9.73( .75)	2.549	.011
	Mother's misbehavior	6.36(.13)	7.07( .53)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pening type	20.23(.26)	17.25(1.37)	-0.031	.975
	Flattery type	10.33(.13)	10.35( .73)		
	Sacrifice type	10.50(.13)	10.26( .69)		
	Insincerity · threatness · assesment	25.58(.47)	33.56(2.56)		
Ill-treatment experience	Noninterference	13.00(.24)	16.22(1.17)	-3.066	.005
	Physical ill-treatment	9.73(.21)	14.75(1.41)		
	Mental ill-treatment	10.29(.24)	13.63(1.19)		
Family's functional characteristics	Attachment to family	19.44(.18)	15.64( .94)	-2.889	.004
	Family's supervision	20.72(.20)	19.00( .94)		

1) Fisher's exact test

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족기능에서 가족애착( $t=4.516, p<.001$ )과 부모감독( $t=1.963, p=.050$ )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4. 사회환경관련요인에 따른 가출경험의 차이분석

사회환경관련요인에 따른 가출경험군과 비경험군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교사와의 관계( $t=.708, p=.015$ )의 경우 가출 비경험군사용군에서 더 높은 평균치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 학교생활 만족도( $t=-2.444, p=.015$ )는 오히려 경험군에서 높은 평균치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비행경험 친구의 수( $t=-5.719, p<.001$ ) 및 비행에 대한 친구의 압력( $-3.525, p=.002$ ) 그리고 비행에 대한 친구의 태도( $t=-4.405, pp<.001$ )는 모두 경험군에서 더 높은 평균치를 보이고 있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친구에 대한 애착도( $t=1.905, p=.057$ )와

친구에 대한 필요도( $t=-.349, p=.727$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5. 청소년의 가출경험에 관한 예측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최종 추출된 설명변인을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개인관련요인으로는 흡연경험, 비행 경험, 정신·신체증상 호소성향과 스트레스가 선정되었다. 또한 가정관련요인으로는 가족기능 중 가족애착이 선정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사회환경요인으로는 비행 친구의 수가 최종 추출되었다. 특히 비행경험의 유무가 Odds Ratio가 10.341로 청소년의 가출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본 연구결과 구축된 예측요인의 예측률(% Correct Predictions)은 95.5%이며, -2 LL값은 76.995로 최종 로지스틱 회귀모형이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Model Chi-Square의 자유도는 7,  $p=.0001$ 로서 선정된 모든 요인과 가출 경험과는 무관하다는 영가설  $H_0: \beta=0$ 을 기각하게 된다. 따라서 최종 예측요인은 청소년의 가출경험에 유의

<Table 4> The Difference of Runaway Experience According to Society-Related Variables (N=592)

Variables	Runaway experience		t	p	
	None M(SE)	Have M(SE)			
School factor	Content with school life	6.89(.15)	8.55(.80)	-2.444	.015
	Relation to teacher	10.66(.17)	9.89(1.07)	.708	.485
Friend factor	Affection of friend	31.66(.32)	34.33(1.40)	-1.905	.057
	Need to friend	8.18(.17)	8.45(.86)	-.349	.727
	Friend's pressure of delinquency	8.53(.08)	12.46(1.11)	-3.525	.002
	Friend's attitude of delinquency	12.06(.25)	20.15(1.82)	-4.405	<.001
	Number of delinquency friend	14.00(.25)	26.69(2.21)	-5.719	<.001

<Table 5> Predictive Variables on Runaway Experience

Variable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Wald Chi-square	Pr Chi-square	Odds Ratio (conditional)	95% confidence interval
Intercept	-6.989	2.666	6.874	.009		
<Individual-related factors>						
Smoking experience(Have)	1.815	.675	7.241	.007	6.142	1.637-23.041
Delinquent experience(Have)	2.336	1.144	4.167	.041	10.341	1.098-97.422
Individual-related factors (psychosomatic symptoms traits)	.142	.047	9.110	.003	1.153	1.051- 1.264
Stress	-.132	.055	5.870	.015	.876	.787- .975
<Home-related factors>						
Family's funtional characteristics (attachment to family)	-.154	.065	5.532	.019	.857	.754- .975
<Society-related factors>						
number of delinquency friend	.089	.030	8.629	.003	1.094	1.030- 1.161

미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Hosmer-Lemeshow 적합도에서  $p=.951$ 로 실제관측치와 모형에 의한 기대치와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예측요인이 적합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Nagelkerke's  $R^2$  값은 .560으로 최종 예측요인에 선택된 각 변인들이 중학교 청소년의 가출경험을 56.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 의

본 연구는 중학교 청소년의 가출경험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을 규명하고, 예측요인을 구축하고자 서울시 소재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가출경험의 영향요인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개인과 관련된 여러 변인들 중 가출 경험군과 비경험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변인들은 학년, 성적, 음주·흡연·약물·비행·성경험, 성격특성(사회성향과 우울성향 제외), 자아존중감, 스트레스였다. 이 중 흡연경험, 비행경험, 성격특성 중 정신·신체증상호소성향, 스트레스의 4가지 변인이 최종 가출 예측요인에 포함되었으며, 특히 비행경험은 총 6가지 예측요인 중 가장 높은 승산비(10.341)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가출경험이 있는 학생이 가출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흡연을 많이 한다고 보고한 Kim 등(2004)과 일치하고 있다. 또한 Chung(2000) 역시 가출 경험군에서 흡연경험이 있는 경우가 약 5.4배, 음주경험이 있는 경우가 약 7.5배, 성경험이 있는 경우가 약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 외에도 흡연, 음주, 가출, 비행 등의 청소년의 사회적 이탈행동은 청소년 가출과 유관하다고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와(Lee, Kim, Kim, & Chung, 2006; Shrier et al., 1997) 일치하고 있다.

가출의 일차적인 책임을 개인에게 두었던 선행연구(Booth & Zhang, 1996; Roberts, 1987)들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개인의 성격특성에 있어 가출 경험군과 비경험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가출 경험군에 있어 정신신체호소성향이 더 높게 나온 본 연구결과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Chung(200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중학교 청소년 가출의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적 측면에서 지지적인 상담의 제공 및 대처기술의 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바람직한 능력발휘 훈련, 자아존중감 개선훈련, 적절한 자기주장 기술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중학교 청소년의 가출경험과 관련된 가정관련요인으로 경제적 수준, 개방형·불성실·음박·평가형 의사소통, 학대(방임, 신체적·정서적 학대), 가족의 기능(가족애착, 부모감독)이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족애착만이 최종 예측요인에 포함되었다.

Kim 등(2004)은 부모의 애정과 관심은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Lee(2005) 또한 부모와의 문제로 가출충동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가족관련요인 중 경제적 수준, 개방형과 불성실·음박·평가형 의사소통,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부모감독의 경우 최종 예측요인에서는 제외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부모의 강압적인 훈육태도가 가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 Kim(2004), 부모의 신체적 폭행, 학대 및 차별대우가 가출을 유발시킨다고 한 Chang(2003), Yui, Song과 Lee(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중학교 청소년 가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방과 후 귀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예방대책이라 할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정서적 지지와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부모-자녀간 명료한 대화와 온화한 가정분위기를 바탕으로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족복지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의 자녀양육태도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질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실시가 필요하겠다. 또한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자녀지도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다양한 자원에 대한 안내에서부터 직접적인 상담제공까지 역동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중학교 청소년의 가출경험과 관련된 사회·환경 관련요인으로 학교생활 만족도, 비행경험 친구의 수, 비행에 대한 친구의 압력·태도, 비행경험친구의 수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비행경험 친구의 수만이 최종 예측요인에 선정되었다.

Williams(1982)의 경우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가치가 수용되는 환경을 찾아 가출하는데 이는 자신의 관점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이 바로 그러한 환경에 존재하



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비행경험 친구의 수가 최종 예측요인에 포함된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Chung(2002) 역시 불량친구를 포함한 사회적 환경이 좋지 않은 학생일수록 가출경험이 높다고 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 외 선행연구에서는 지지되었던 요인들이 최종 예측요인에서 제외된 이유는 본 연구대상이 서울시에 재학 중인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초·고등학교 학생과 비행청소년 및 특수한 상황에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사회·환경과 관련되어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취미, 여가활동, 종교생활 등을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휴식 공간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즉 청소년 스스로 자아의식이나 금지 등 삶에 대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청소년의 가출은 청소년에게 있어 하나의 위기상황으로 즉각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즉 청소년 상담과 가출 청소년쉼터, 그룹 홈, 야학, 공부방 등의 확충과 역동적 활성화를 비롯하여 의료, 법률, 여러 민간기관의 서비스로 구성된 하나의 통로를 통하여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중학교 청소년의 가출경험과 관련된 요인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포괄적인 분석을 실시, 위험요인을 규명하고, 예측요인을 구축하고자 시도되었다.

서울시에 소재하는 남·녀 중학교 학생 592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대해서는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가출 경험군과 비경험군의 각 변인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chi-square 검정과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stepwise selection method에 의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중학교 청소년의 가출경험을 예측하는 최적의 축소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개인과 관련된 요인 중 정신·신체증상호소 성향과 흡연·비행 경험,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가출경험을 예측하는 위험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비행경험의 유무가 Odds Ratio가 10.34로 청소년의 가출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정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가족애착만이 청소년의 가출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사회환경과 관련된 요인으로 비행친구의 수가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본 연구에서 제시된 최종예측모형은 -2LL이 76.995, Model Chi-Square의 자유도는 7,  $p=.0001$ 로서 최종로지스틱 회귀모형이 주어진 자료에 잘 적합되었다. 또한 Hosmer-Lemeshow 적합도에서  $p=.951$ 로서 모형적합이 잘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본 예측변인 모형의 예측률(% Correct Predictions)은 95.5% 이었고, Nagelkerke's  $R^2$  값은 .560 최종 예측요인에 선택된 각 변인들이 청소년의 가출경험을 56.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모형은 서울시 중학생을 대상으로 현재의 일정한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구성된 것이다. 따라서 대상자나 그 배경구조가 변화되면 모형자체의 수정이 요구되므로 향후 적용을 위해서는 반복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중학교의 보건교사, 상담교사, 담임교사들의 경우 가출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인 바, 이를 위해 본 연구도구의 적극적 활용을 권장한다.
3. 본 연구의 모형을 근거로 하여 중학교 청소년 가출 예방 프로그램 및 가출경험자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References

- Barnes, H., & Olsen, D. H. (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 56, 438-447.
- Booth, R. E., & Zhang, Y. (1996). Severe aggression and related conduct problems among runaway and homeless adolescents. *Psychiatry Res*, 47(1), 75-80.

- Chang, S. H. (1993). *A study on cause of teenage runaway and corresponding counter-measures based on consultative case analysis*.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Busan.
- Chang, S. R. (2003). *An anlysis on the current states of teenage runawa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 Cho, H. R. (2002).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runaway youth in nation*. Seoul: Korea Youth Shelter Association.
- Chung, H. K. (2000). *A forecast model on runaway yout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 Chung, J. M. (2002).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social environment and individual intelligence on adolescents' runaway*.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Iksan.
- Farella, C. (2000). The runaways. *Nurs Spectr*, 10(17), 24-29.
- Kim, H. R. (2004). *A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about cause of disappearance from home & school maladjusted behavior of runaway teenagers living in Uijeongbu c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 Jin University, Phochon.
- Kim, J. H., & Lee, D. W. (1996). *The study on the juvenile delinquency scales in Korea*. Seoul: KIC.
- Kim, J. H., & Park, J. S. (1995). *A research on juvenile drug abuse-in terms of smoking and drinking*. Seoul: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im, J. H., & Park, M. S. (199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linquent friends and juvenile delinquency*. Seoul: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im, K. H., Kwon, H. J., Kim, H. Y., Lee, J. H., & Kim, S. K. (2004). A study on the variables affecting high school girls' smoking experience. *J Korea Youth Res Assoc*, 11(3), 339-362.
- Kim, H. S., & Kim, H. S. (1998). Development of instrument for measuring personality factor related to juvenile delinquency.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8(1), 190-201.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5). *Juveniles' statistics in 2005*. Seoul: Author.
- Korea Youth Shelter Association. (2005).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runaway youth shelter*. Seoul: Author.
- Kwon, M. Y. (1997). *The individual, familial, and peer-relational characteristics of drug-abuse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Lee, E. J. (2005). *A study on the current states of teenage runaway in Ulsan city and some solu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Ulsan.
- Lee, J. H., Kim, K. H., Kim, H. Y., & Chung, H. K. (2006). A study on the variables affecting high school girls' runaway experience. *J Korea Youth Res Assoc*, 13(3), 161-179.
- Nam, Y. O. (1999). The influences of the psychodynamics environments of the family on the adolescents' runaway as survival strateg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aegu University, Gyeongsan.
- Park, Y. S. (2002). *A crisis model for the early adolesc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Roberts, A. R. (1987). *Runaway and non-runaways*. Chicago: The Coray Press.
- Rowlison, R. T., & Felner, R. D. (1988). Major life events, hassles and adaptation in adolescence: Confounding in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life stress and adjustment revisited. *J Pers Soc Psycholo*, 55(3), 432-444.
- Ruffolo, M. C., Sarri, R., & Goodkind, S. (2004). Study of delinquent, diverted and high-risk adolescent girls: Implications for mental intervention. *Soc Work Res*, 28(4),

237-245.

Shrier, L. A., Emans, S. J., Woods, E. R., & DuRant, R. H. (1997). The association of sexual risk behaviors and problem drug behaviors in high school student. *J Adolesc Health Care, 20*, 377-383.

Straus, M. A. (1980). Stress and child abuse. In R. E. Hefle and C. H. Kempe(Eds.). *The battered child*(pp. 86-103).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The Commission on Youth Protection. (2002).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contacting harmful surroundings of adolescent*. Seoul: Author.

Thompson, S. J., Pomeroy, E. C., & Goger, K. (2005). Family-based treatment models targeting substance use and high-risk behaviors among adolescents: A review. *J Evid Based Soc Work, 2*(1-2), 207-233.

Williams, K. L. (1982). *Attitudes toward violences and conduct among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tony Brook.

Yui, S. K., Song, S. M., & Lee, S. R. (2000). *Adolescents' runaway*. Seoul: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 Abstract -

## Predictive Factors of Middle-school Students' Runaway Experience

- About Individual, Home and Social  
Factors -

Kim, Kyung-Hee\* · Kim, Hee-Young\*\*  
Kim, Su-Kang\*\*

**Purpose:** In recent years, the problem of runaway youths, which is rapidly increasing and worsening in nature, has emerged as a serious problem to individuals, home and the society as a whole. Against this back drop, this study was designed to illuminate the danger signals through extensive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he running away of middle-school students and, on this basis, build a forecast model on runaway middle-school students. **Method:** The subjects of this descriptive survey on the causal relation were 592 subjects enrolled in middle schools selected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The data collected from June 19 to July 19, 2003 were analysed through the SPSS 10.0 program. The differences between the runaway group and the non-runaway group were determined through chi-square and t-test. Also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basis of the purposeful selection method for constructing the forecast model. **Result:** The findings are as follows: Individual-related factors predicting runaway middle-school students were smoking experience, delinquent experience, psychosomatic symptoms and stress. A home-related factor was attachment to family. A society-related factor was the number of delinquency friends.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 broad intervention program should be provided to middle-school students' culture related to runaway group. It is also recommended that a variety of individual, home and society-related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for the runaway group.

**Key words :** Middle School Students, Runaway Experience

\*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 Instructor, Department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